



주 제:	“ 지금의 순교 ”	“ 성 안드레아 김대건과 성 바울로 정하상과 동료순교자 대축일 ”	2009년 9월 20일
복음 묵상:	[루카 9,23-26]	[지혜 3,1-9]	[로마 8,31-39]

순교란 ‘자신의 신앙을 증거 하기 위해 죽음을 당하는 일’이다. 따라서 순교자라는 말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을 뜻한다. 본래 라틴어의 ‘순교자(Martyr)’라는 말속에도 ‘증인, 증거자’라는 뜻이 담겨 있다. 즉 순교자들은 그들의 신앙의 진리를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증거한 사람들인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증거했을까? 순교 선열들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대로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진리를 증거한 분들이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루카 9, 24)

목숨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다. 가장 귀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우리의 현재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여기에 삶의 모든 가치를 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며, 이 귀한 진리를 증거한 분들이 곧 순교자인 것이다. 그 많은 순교자들 중에서 특별히 영웅적인 삶을 보여주신 분들을 교회에서는 ‘성인(聖人)’으로 받들어 공경하고 그분들의 생애를 기리며 그들의 참 신앙을 본받으며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신앙의 모범이신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은 최초로 한국인 사제가 되신 분으로 26 살에 순교하셨고, 정하상 바오로 성인은 박해시대 때 신부님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복사도 하고 길 안내도 했던 훌륭한 평신도로서 45 살 나이에 순교하셨다. 오늘은 이 두 순교 성인(聖人)을 포함한 103위 순교 성인과, 아직 성인 반열에 오르지 못한 1 만 여명의 무명 동료 순교자들을 기념하며 한국 천주교회의 뿌리를 생각해보는 날이다.

오늘날의 현실에 ‘죽어야 산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한 순교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러한 세속적인 현실 속에서 죽음으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다음 부활하셨음을, 이 세상에 자신 있게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로마 8, 38-39) 아멘. (인천 백 기순 신부님의 강론 중에서)

-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투병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최철훈 베드로 형제님. 부친이 빨리 회복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해주십시오.

알림:
본당 조셉 학사님 부제 서품을 축하합니다.

- 9월 20일 10:00 본당에서 맥그리 주교님 집전으로 학사님 부제 서품식이 있습니다. 학사님의 부제 서품을 축하하며, 예수님과 같은 사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고난회 강수근 신부님 초점 일일 성가 피정

- 누가: 예수 고난회 강수근 신부
- 언제: 2009년 10월 31일(토) (8:30 AM- 6:00 PM)
- 어디서: San Francisco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거나 망해 버린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거룩한 전사들을 거느리고 영광스럽게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당신의 손길 때문에♡

- 리처드 바크의 《영혼의 동반자》 중에서-

가슴 아프기는 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당신과의 만남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성장했으며
나 또한 당신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긍정적인 헌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서로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약하고 외롭습니다,
시련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길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 손길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나를 더 강하게 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들의 선조는..

1846년 병오박해 때에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순교하셨으며 총 아홉 분이 순교 성인이 되셨으며, 1866년의 병인박해 때에는 베르뇌주교님과 다블리 주교님이 순교하시는 등 프랑스 신부님들은 총 일곱 분 순교하셨으며, 우리 선조들은 17 분이 순교성인이 되셨습니다.

순교 성인을 성별을 살펴보면, 프랑스 신부님들을 제외한 우리 선조 성인은 47 분, 성녀가 46 분이므로 성별비율은 이보다는 더 공정할 수 없었습니다. 세례명은 베드로 성인이 12 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녀는 막달레나와 바르바라 영명이 각각 8 분으로 성녀 중에서는 공동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막달레나와 바르바라의 세례명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씨는 이씨가 18 분, 김씨가 16 분, 정씨가 8 분, 박씨가 6 분이었습니다.

순교 방식은 교수형 14 분, 균문효수형은 14 분(프랑스 신부님 10 분, 김대건 신부님, 현석문 가톨릭, 황석두 루카, 장주기 요셉), 옥사 7 분, 장(杖)사 4 분, 참수형이 64 분입니다. 처형당시 활동지역은, 처형을 결정한 감영을 기준으로 공주, 상주, 평양이 각각 1 분이며 전주가 6 분이고 나머지는 모두 한양입니다. 그리고 최연소 성인은 14 세의 유대철 베드로 성인이고 최연소 성녀는 15 세인 이 바르바라 성녀이고 최고령자는 72 세 되신 정의배 마르코 성인입니다. 연령대별로는 10 대가 4 분, 20 대가 18 분, 30 대가 19 분, 40 대 27 분, 50 대가 21 분, 60 대 5 분, 70 대가 1 분, 연령 미상이 8 분이었습니다.